



교회의 머리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아셰르 인트레이터, 2008년 4월 6일

예슈아께서는 전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분께서는 정신 분열증을 앓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은 결국 하나로 통합될 것입니다. 예슈아를 두 역할을 다 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에후드 올메르트를 교황으로, 베네딕토를 이스라엘의 총리로 그려 보시면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예슈아께서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는 게 사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그 분의 이중 신분으로부터 전개됩니다. 예슈아께서는 두 가지 성품(하나님의 아들 이면서 다윗의 후손)을 갖고 계십니다.

롬 1:2-4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신 그 분의 완벽한 결합에서 우리는 구원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 편으로 보면 그 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편에서 보면 유대 출신의 사람이십니다. 최소한 이 둘 중 하나의 표현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겐 불쾌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예슈아의 이중적 성품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모두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그 분의 신성을 반영하는 것인 반면, “메시아”라고 하면 다윗의 후손 되신 그 분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슈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냅니다. 서신서에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으로 더 많이 그려집니다. 예슈아의 이중적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 간의 신비로운 동역과 연합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엨 2:14-15, 3:3-6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 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화해라는 비밀이 **그 분 안에**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 구절은 그저 성도들 간의 화해를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간의 화해는 먼저 그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신 예수아께 화해됨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본 성품이 연합되어 계시기에, 우리에게도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알도록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엡 1:19-22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편에서 늘 깨어 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심에 대해 깨달아야만 합니다. 둘째, 우리는 그 분께서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와 권세자들을 통치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 땅에 임하는 그 분의 통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 즉 진실되고 거듭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임합니다. 예수아께서는 그 무리의 지도자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임하는 그 분의 영적 권세의 대리(代理)입니다. 우리는 예수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중재체(仲裁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볼 때까지는 결코 교회를 세상을 통치하는 단체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아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도록 하는 중재자들입니다. 또 한편 예수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요 19:19-22

빌라도는 또한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 명패에다가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고 말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윗 왕에게 이 세상 정사들에 대한 권세를 약속하셨고, 다윗의 후손이 메시야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삼하 7:12-16, 시 89:19-29, 마 1:1-2:12, 눅 1:31-

33).

우리는 예슈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볼 때까지 이스라엘의 운명과 권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결국 세계 가운데 우뚝 설 것이고, 천년 왕국 때 예슈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모순처럼 들리죠? 누가 다스린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아니면 교회? 답은 둘 다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따르면, “기독교”의 각종 분파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여질 것이요 이스라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한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 이스라엘은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고, 교회는 더 큰 이스라엘 “집”입니다(겔 37:16). 교회는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엡 2:12). 그 때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과 교회로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서며, 그 분의 이름도 하나일 것입니다(겔 37:22).

슌 14:9

주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루 세 번씩 드리는 때 예배의 끝을 “알레이누” 기도문에 등장하는 위 구절로 마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과 세계적 교회가 예슈아의 왕국 안에서 하나가 됨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번역- 고병현

Shaul Syunghyun Go